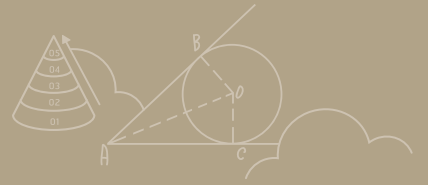




KU  
논술



# 2026학년도 KU모의논술 인문 문제 해설



## 1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인문계열 모의논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대학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이해력, 분석력, 문학작품 감상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고등학교 국어와 사회 과목 계열의 교과서들에서 추출했으며,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라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이번 출제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사안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의 중요성이다. 우선 1번 문제는 [가] 지문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것을 [나]의 2개 도표 자료에 적용해 도표가 드러내는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가]의 논지에 부합되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요구한다. [가]는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하나의 고정된 관점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인 관점을 종합해 통합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특정 문제는 역사성이라는 조건을 고려해 변화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고(시간성), 사회구조 및 제도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며(사회성), 도덕적 가치와 규범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서(윤리성) 분석해야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의 도표 (1)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 부양비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이를 책임질 실질적인 생산인구의 꾸준한 감소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과 책임이 예상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도표 (2)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수험생들은 두 개 자료의 상관성을 살핀 후 지문 [가]의 주장처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야 한다. 즉 노인 인구와 부양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시간적, 사회적 관점에서 고려할 때 일시적 현상이 아닌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구조의 지속적 변동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윤리적 관점에서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과 방향에 필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됨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도표 (2)에 나타난 노인부양 책임에 대한 의식 변화는 이런 역사적, 사회적 변동에 따른 가치관과 규범성 방향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도표의 수치 변화 흐름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문 [가]에서 개념을 설명한 시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적절히 매개한 통합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관건이다.

[문제 2]는 개념 지문 [다], [라]와 관련지어 소설 지문 [마]의 주인공의 변화를 논하는 것인데, [문제 2]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마] 지문 속의 갈등 상황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다], [라]와 적절히 연계하여 분석하는 논리적 능력이 필요하다. [다]에서 말하는 ‘땃 내림 효과’는 외적 기준이나 통념에 의해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이 영향을 받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외적 조건에 따른 개인의 수동적 반응을 설명하는 한 방식이다. 지문 [마]의 주인공은 얼핏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판단 기준을 철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가 생각의 땃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는 ‘몸으로 겪기’를 통한 주체적인 성찰 과정에 기반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이었던 태도로부터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요컨대 [마]의 ‘공’에게 일어난 ‘땃’의 이동은 주체적 성찰과 각성을 통한 성장, 혹은 변화로 볼 수 있다. 작품 말미에서 ‘공’이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편안한 해방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중심적 편향성을 벗어나 공동체적 복리로 판단 기준을 변경한 ‘땃의 이동’이 가져온 내적 성숙과 평화를 대변하는 문학적 형상에 해당한다. [마]에서 ‘겪다’의 과정을 통한 자기성찰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주체적인 ‘땃 내림’ 변화를 잘 읽어내고 ‘나라는 행위 주체와 ‘세계’라는 공동체적 환경 간의 성숙한 어울림의 가치를 잘 풀어낸다면 출제 의도에 부합한 답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다], [라]의 개념과 요지를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통합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마]와의 정합적인 연계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낮은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2026학년도 건국대 모의논술 고사는 갈등의 소지가 큰 사회 문제에 대하여 특정 관점이나 자기중심적 태도에 갇히지 않고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성찰을 통해 주체적 판단의 ‘땃’을 내릴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가려내기 위함이다.

### ▶ 문제 1

1번 문제는 [가] 지문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것을 [나]의 2개 도표 자료에 적용해 현상 변화를 설명하면서 [가] 논지에 부합되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요구한다. [가]는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하나의 고정된 관점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인 관점을 종합해 통합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특정 문제는 역사성이라는 조건을 고려해 변화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고(시간성), 사회구조 및 제도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며(사회성), 도덕적 가치와 규범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서(윤리성) 분석해야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문 [나]의 도표 (1)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0년 11%에서 2030년 23.3%를 거쳐 2050년 37.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부양비도 각각 15.2%, 38.6%, 71%로 가파르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반면 이를 책임질 실질적인 생산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과 책임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도표 (2)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8년 89.9%에서 2010년 36%로 대폭 감소하다가 2014년 31.7%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개 자료의 상관성을 살핀 후 지문 [가]의 주장처럼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노인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노인 인구와 부양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시간적, 사회적 관점에서 고려할 때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 구조의 지속적 변동이기에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삶의 방식, 윤리 의식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도표 (2)의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 변화는 이런 역사적, 사회적 변동에 따른 가치관과 규범성 방향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사회 문제에 대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던 노부모 부양의 책임도 가족, 정부,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인데 인간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관계를 갖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 부양처럼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통합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면서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전향적인 태도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 ▶ 문제 2

[문제 2]는 소설 지문 [마]의 주인공 '공'의 변화를 개념 지문 [다], [라]와 관련지어서 논할 것을 요구한다. 설득력 있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마] 지문 속의 문제 상황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다], [라]와 논리적으로 적절히 연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땃 내림 효과'는 일반적으로 외적 기준이나 통념에 의해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이 영향을 받는 현상을 일컫는다. 외적 조건에 따른 개인의 수동적 반응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문 [마]에서 주인공 '공'이 겪는 일련의 상황은 이와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공'은 얼핏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판단 기준을 철회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가 생각의 땃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는 '몸으로 겪기'를 통한 주체적인 성찰 과정에서 마련되었다고 봄이 옳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이었던 태도로부터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롭고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간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지를 몸으로 겪으면서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되며, 엘리베이터가 '나'와 무관한 요소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공공적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치고 힘든 몸을 위해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체험적 각성 또한 기존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한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많이 낡고 위험하다는 것과 주민 총회 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겪음'을 통해 이루어진 발견에 해당한다. '공'이 자신의 기억 속에 찾아들어 있던 엘리베이터 사용의 기억을 떠올리고서 가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장면은 체험과 성찰을 통한 판단 기준의 변화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요컨대 [마]의 '공'에게 일어난 '땃의 이동'은 주체적 성찰과 각성을 통한 발전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작품 말미에서 '공'이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편안한 해방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중심적 편향성을 벗어나 공동체적 복리로 판단 기준을 변경한 '땃의 이동'이 가져온 내적 성숙과 평화를 대변하는 문학적 형상에 해당한다. 서명을 받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아날로그적 행동은 불편함과 피로를 유발했지만, 그 '몸으로 겪기'의 과정은 '보기' 차원의 추상적이고 표면적이며 편향된 관점을 넘어 나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각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할 만하다.

이상과 같이 [마]에서 '겪다'의 과정을 통한 자기성찰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주체적인 '땃 내림' 변화를 잘 독해해 내고 '나'라는 행위 주체와 '세계'라는 공동체적 환경 간의 성숙한 어울림의 가치를 잘 의미화한 경우 출제 의도에 부합한 답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다], [라]의 개념과 요지를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통합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마]와의 정합적인 연계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작품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서술 내용이 겉돈다면 낮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수험생 스스로 문제 상황에 대한 주체적 성찰과 판단에 '땃'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 3 채점 기준

#### ▶ 문제 1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40점
	[가]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나] 자료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논리적 분석	<p>① [가]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술하였는가?</p> <p>[가]는 현대 사회 문제를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그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보다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가 된다.</p> <p>② [나]의 자료 (1)에 제시된 노인 인구 및 부양비 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p> <p>자료 (1)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2010년 11%에서 2050년 3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부양비도 15.2%에서 71%로 급격히 상승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인구 구조가 불균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세대 간 부양 부담의 격차 심화와 노동력 감소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p> <p>③ [나]의 자료 (2)에 나타난 노인 부양 책임의식 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술하였는가?</p> <p>자료 (2)는 노인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개인과 가족 중심에서 점차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확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8년에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약 90%에 달해, 부양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가족과 정부, 사회'와 '정부, 사회 및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가 51.7%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가족에게 집중되었던 부양 책임이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모두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다.</p> <p>④ [가]의 관점과 [나]의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였는가?</p> <p>[가]에서 제시된 시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나]의 자료를 분석하면, 고령화 문제는 일시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사회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자료 (1)의 노인 인구 및 부양비의 증가와 자료 (2)의 부양 책임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 변화를 시간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유기적으로 서술한 경우, 좋은 답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하여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는가? 어휘 선택의 적확성, 구문의 정확성, 문장 및 단락 간 연결의 자연스러움 등의 측면에서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는가?</p>	

####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0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가지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점

▶ 문제 2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80 253 477 309">평가 영역</th> <th data-bbox="477 253 1315 309">평가 항목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0 309 477 1014">[다]와 [라]에 대한 이해</td> <td data-bbox="477 309 1315 1014"> <p>① [다], [라]의 요지와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파악하였는가?</p> <p>[다]의 ‘땀 내림 효과’는 인간이 판단 기준으로서 땀을 어디에 설정하는가에 따라 심리와 행동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외적 기준이 땀으로 작용할 때 본인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대신 무심중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갈 수 있음을 말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합리적인 결정과 행동을 위해서는 땀의 적절한 설정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p> <p>[라]는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운 버스 타기와 걷기 같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직접 몸으로 ‘겪는’ 체험적 삶의 방식의 전환이 세상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심화와 확장으로 이어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p> <p>② [마]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다], [라]의 연결된 의미를 잘 파악했는가?</p> <p>지문 [마] 주인공의 문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와 [라]를 따로 분리해서 적용하거나 이를 단순한 대립적 관계로 설정해서는 곤란하다. ‘겪기’를 통한 주체적 성찰이 ‘땀 내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로 연결해서 통합하는 논리적 과정이 필요하다. ‘겪기’를 통한 체험적 성찰 없이 외적 기준을 따르는 형태의 ‘땀 내림’은 수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몸으로 겪고 성찰하면서 스스로 내린 땀은 주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성숙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겪기’를 매개로 한 ‘땀 내림 효과’의 재의미화가 이루어질 때 [라]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p> </td> </tr> </tbody> </table>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다]와 [라]에 대한 이해	<p>① [다], [라]의 요지와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파악하였는가?</p> <p>[다]의 ‘땀 내림 효과’는 인간이 판단 기준으로서 땀을 어디에 설정하는가에 따라 심리와 행동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외적 기준이 땀으로 작용할 때 본인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대신 무심중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갈 수 있음을 말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합리적인 결정과 행동을 위해서는 땀의 적절한 설정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p> <p>[라]는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운 버스 타기와 걷기 같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직접 몸으로 ‘겪는’ 체험적 삶의 방식의 전환이 세상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심화와 확장으로 이어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p> <p>② [마]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다], [라]의 연결된 의미를 잘 파악했는가?</p> <p>지문 [마] 주인공의 문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와 [라]를 따로 분리해서 적용하거나 이를 단순한 대립적 관계로 설정해서는 곤란하다. ‘겪기’를 통한 주체적 성찰이 ‘땀 내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로 연결해서 통합하는 논리적 과정이 필요하다. ‘겪기’를 통한 체험적 성찰 없이 외적 기준을 따르는 형태의 ‘땀 내림’은 수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몸으로 겪고 성찰하면서 스스로 내린 땀은 주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성숙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겪기’를 매개로 한 ‘땀 내림 효과’의 재의미화가 이루어질 때 [라]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p>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다]와 [라]에 대한 이해	<p>① [다], [라]의 요지와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파악하였는가?</p> <p>[다]의 ‘땀 내림 효과’는 인간이 판단 기준으로서 땀을 어디에 설정하는가에 따라 심리와 행동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외적 기준이 땀으로 작용할 때 본인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대신 무심중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갈 수 있음을 말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합리적인 결정과 행동을 위해서는 땀의 적절한 설정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p> <p>[라]는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운 버스 타기와 걷기 같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직접 몸으로 ‘겪는’ 체험적 삶의 방식의 전환이 세상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심화와 확장으로 이어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p> <p>② [마]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다], [라]의 연결된 의미를 잘 파악했는가?</p> <p>지문 [마] 주인공의 문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와 [라]를 따로 분리해서 적용하거나 이를 단순한 대립적 관계로 설정해서는 곤란하다. ‘겪기’를 통한 주체적 성찰이 ‘땀 내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로 연결해서 통합하는 논리적 과정이 필요하다. ‘겪기’를 통한 체험적 성찰 없이 외적 기준을 따르는 형태의 ‘땀 내림’은 수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몸으로 겪고 성찰하면서 스스로 내린 땀은 주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성숙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겪기’를 매개로 한 ‘땀 내림 효과’의 재의미화가 이루어질 때 [라]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p>						
문제 2	<table border="1"> <tbody> <tr> <td data-bbox="280 1014 477 1765">[다], [라]와 연계한 [마] 인물 변화에 대한 분석</td> <td data-bbox="477 1014 1315 1765"> <p>③ [마]의 주인공 ‘공’이 ‘겪기’를 통해 이루는 변화에 대하여 그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p> <p>[다], [라]와 연계하여 [마]를 이해함에 있어 우선 주인공이 서명을 받는 과정, 즉 이웃 주민들과 대면하며 ‘몸으로 겪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정확히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핏 공은 계속 이웃과 부딪치면서 갈등과 분노가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새로운 성찰과 각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문 뒷부분에서 공이 자신의 잠재 기억을 찬찬히 되돌아본 끝에 기꺼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마음의 균형과 평화를 회복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편함과 고통, 갈등의 과정이 성숙한 자기 극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경우 낮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p> <p>④ [마] 주인공의 변화를 [다], [라]와 관련지어서 정확하고 깊이있게 분석하였는가?</p> <p>‘공’의 변화를 [다], [라]와 얼마나 정합적으로 연결하여 논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 2] 풀이의 핵심 관건이다. 그 일차적인 과정은 [마]에서 말하는바 막연하고 추상적인 ‘보기’를 넘어서 ‘몸으로 겪기’ 과정을 통한 새로운 발견과 각성이다. 이때 이웃 주민들이 지닌 서로 다른 입장과 만나면서 자신의 판단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와 갈등에서 벗어나 내적 평화를 이뤄 나가는 과정을 [다]에서 말하는 ‘땀의 이동’으로 의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의 땀의 이동은 주체적 체험과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용례의 ‘땀 내림 효과’와 달리 수동적 이끌려감이나 자기 포기나 아닌 인식의 확장과 내적 성숙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p> </td> <td data-bbox="1334 1014 1481 1765">60점</td> </tr> <tr> <td data-bbox="280 1765 477 1919">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td> <td data-bbox="477 1765 1315 1919">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td> <td data-bbox="1334 1765 1481 1919"></td> </tr> </tbody> </table>	[다], [라]와 연계한 [마] 인물 변화에 대한 분석	<p>③ [마]의 주인공 ‘공’이 ‘겪기’를 통해 이루는 변화에 대하여 그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p> <p>[다], [라]와 연계하여 [마]를 이해함에 있어 우선 주인공이 서명을 받는 과정, 즉 이웃 주민들과 대면하며 ‘몸으로 겪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정확히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핏 공은 계속 이웃과 부딪치면서 갈등과 분노가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새로운 성찰과 각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문 뒷부분에서 공이 자신의 잠재 기억을 찬찬히 되돌아본 끝에 기꺼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마음의 균형과 평화를 회복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편함과 고통, 갈등의 과정이 성숙한 자기 극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경우 낮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p> <p>④ [마] 주인공의 변화를 [다], [라]와 관련지어서 정확하고 깊이있게 분석하였는가?</p> <p>‘공’의 변화를 [다], [라]와 얼마나 정합적으로 연결하여 논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 2] 풀이의 핵심 관건이다. 그 일차적인 과정은 [마]에서 말하는바 막연하고 추상적인 ‘보기’를 넘어서 ‘몸으로 겪기’ 과정을 통한 새로운 발견과 각성이다. 이때 이웃 주민들이 지닌 서로 다른 입장과 만나면서 자신의 판단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와 갈등에서 벗어나 내적 평화를 이뤄 나가는 과정을 [다]에서 말하는 ‘땀의 이동’으로 의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의 땀의 이동은 주체적 체험과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용례의 ‘땀 내림 효과’와 달리 수동적 이끌려감이나 자기 포기나 아닌 인식의 확장과 내적 성숙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p>	60점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다], [라]와 연계한 [마] 인물 변화에 대한 분석	<p>③ [마]의 주인공 ‘공’이 ‘겪기’를 통해 이루는 변화에 대하여 그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p> <p>[다], [라]와 연계하여 [마]를 이해함에 있어 우선 주인공이 서명을 받는 과정, 즉 이웃 주민들과 대면하며 ‘몸으로 겪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정확히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핏 공은 계속 이웃과 부딪치면서 갈등과 분노가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새로운 성찰과 각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문 뒷부분에서 공이 자신의 잠재 기억을 찬찬히 되돌아본 끝에 기꺼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마음의 균형과 평화를 회복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편함과 고통, 갈등의 과정이 성숙한 자기 극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경우 낮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p> <p>④ [마] 주인공의 변화를 [다], [라]와 관련지어서 정확하고 깊이있게 분석하였는가?</p> <p>‘공’의 변화를 [다], [라]와 얼마나 정합적으로 연결하여 논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 2] 풀이의 핵심 관건이다. 그 일차적인 과정은 [마]에서 말하는바 막연하고 추상적인 ‘보기’를 넘어서 ‘몸으로 겪기’ 과정을 통한 새로운 발견과 각성이다. 이때 이웃 주민들이 지닌 서로 다른 입장과 만나면서 자신의 판단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와 갈등에서 벗어나 내적 평화를 이뤄 나가는 과정을 [다]에서 말하는 ‘땀의 이동’으로 의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의 땀의 이동은 주체적 체험과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용례의 ‘땀 내림 효과’와 달리 수동적 이끌려감이나 자기 포기나 아닌 인식의 확장과 내적 성숙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p>	60점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0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점

## 4 예시 답안

### ▶ 문제 1

[가]는 복잡한 현대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자료 [나]를 분석해 보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시간적 관점에서 자료 (1)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2010년 11%에서 2050년 37.4%로 증가함에 따라 부양비 또한 급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고령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사회 구조 변화임을 시사한다. 자료 (2)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개인이나 가족 중심에서 점차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노인 부양 문제를 사회 제도 및 구조와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을 고려해 사회 전체가 부양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에, 노인 부양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578자]

### ▶ 문제 2

[마]의 주인공 '공'은 아파트 2층에 사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부담하게 된 데 분노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나선다. 서명을 받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공은 여러 곤경을 겪으며 갈등하지만, 내적 성찰의 결과로 생각과 행동의 변화에 다다르게 된다. 그 과정은 '몸으로 겪기'를 통해 판단 기준이라는 '댓'이 옮겨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처음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공'은 부당함을 확신하면서 불의를 바로잡겠다는 태도를 나타낸다. '나'라는 개인이 설정한 추상적 기준에 판단의 댓을 내린 상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의 뜻하지 않은 반응에 부딪히면서 '공'은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 이는 '겪기'의 과정을 통해 댓이 흔들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공'은 표면적으로 완강히 저항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내적 성찰로 나아가게 된다.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오르는 불편함과 피로감 속에서 갖게 된 통찰이다. 고층에 사는 이웃과 만나는 일을 위해서도 엘리베이터는 필요한 것이었다. 그는 취중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것이 자기와 무관한 사물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공공의 삶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선택을 통해 내적 갈등을 벗어나 균형과 평화를 회복한다. 판단 기준이라는 댓을 개인적 관점과 이해관계로부터 공동체적 삶의 가치로 옮겨감으로써 문제 해결을 이룬 것이다. 일차적인 감정 대신 이성적인 판단 쪽으로 댓을 옮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식의 확장과 내적 성숙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댓을 이동한 것이다.

'공'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각, 곧 '보기'의 차원이 아니라 불편함과 고통을 수반한 '겪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몸으로 겪는 과정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 이어지면서 '주체적 댓 내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공'의 사례는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며 부대끼는 이 세상을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997자)

## 5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0	11-15	[가]	o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182	[나-1]	x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5	[나-2]	x
국어	이성영 외	천재교육	2020	110-111	[다]	x
화법과 작문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20	200-201	[라]	x
국어	김동환 외	교학사	2020	388-394	[마]	x